

전남 전통시장 현대화하니 매출 '깡충'

아케이드 설치·문화 콘텐츠 개발 한몫

작년 목표 149억 늘고 강진 15억 매출

전남지역 전통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정연하게 상가를 배치하고 아케이드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면서 내방객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동부·청호·자유 등 전통시장 7곳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149억원 늘어나는 등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매출 증가는 환경개선 외에도 각종 문화, 정보, 정을 나누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7군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 개선사업에 129억원을 투입했다.

100억원을 들여 1만1753㎡, 382면의 주차장도 조성했다. 특히 동부시장 아케이드는 558m로 전국 단일 전통시장 가운데 최대다. 시는 올해도 상수도, 공동 생산 건조장 등 시설 개선 공사를 벌인다. 시설 투자 외에도 소비자가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공원을 하고 질 좋은 상품을 싸게 파는 등의 노력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몫했다.

중소기업청 특성화 육성시장으로 선정된 목포종합수산물장은 흥어브랜드 공인, 토요일시장, 역사문화 투어 등 문화 관광 콘텐츠가 풍부하다. 자유시장은 1점포 1품목 원가 세일 행사를 연중 시행하는 한편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강진의 재래시장인 강진읍시장, 마량시장, 병영시장 역시 꾸준히 매출이 늘면서 지역경제의 효과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3곳의 재래시장은 지역민들의 이용증가와 관광객 방문 증가로 지난해 1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00여명에, 매일 평균 1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강진을 재래시장의 경우 200여대의 주차장과 휴식공간 신규 설치와 고객사는 경품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한편 마량과 병영 재래시장은 3월과 8월에 5일장을 열어 전통시장으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설로 운영되는 강진읍시장은 4일과 9일 5일장이 열린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수산물시장 고객 감사 세일

목포종합수산물시장이 23일부터 이틀간 5~10% 고객 감사 할인판매를 한다. 할인판매 품목은 남도 대표 특산물인 흥어를 비롯해 싱싱한 생선, 젓갈, 건어물 등이다.

김하경 수산물시장 상인회장은 “그 동안 시장을 찾은 고객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할인판매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할인판매와 함께 24일에는 대보름맞이 지신밟기 행사도 연다. 극단 갯돌과 함께 수산물시장 일대를 돌며 올 한해도 민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행사다.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흥어 브랜드 공연, 시장 상인예술단인 관소리합창단의 데뷔 무대도 준비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무안공무원, 인구 유입정책 역할

10명 중 4명 외지 거주

군수 인사상 불이익 경고

무안군 공무원의 10명 중 4명이 외지에서 거주, 인구 유입정책에 역할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체 직원 601명 가운데 40.4%인 243명이 다른 시·군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별로 광주 99명, 목포 133명, 함평, 나주 등 기타 지역이 11명이다. 직급별로 6급 이상 공무원은 198명 중 35.4%인 70명이, 7급 이하의 403명 중 42.9%인 173명이 타 지역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군은 그동안 출산장려금지원, 인제육성금 조성, 귀농인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시책을 펴오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요금, 교통상해보험료, 주민세, 대한직접차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의 이 같은 인구 유입정책에도 정작 공무원 상당수가 자녀 교육과 배우자 직장, 부모 봉양 등을 이유로 외지에서 거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최근 읍면 방문에서 외지 거주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등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얼마나 유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전설의 물고기' 초대형 돛돔

21일 새벽 5시에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앞 해상에서 잡힌 2m기량의 초대형 돛돔. 신안선적 9.77t 해인호 선장 조진선(42)씨 부부가 잡은 돛돔은 길이 1.96m에 무게가 150kg에 달한다. /연희뉴스

순창, 블루베리 특화 중점 육성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

순창군이 지역특화작목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블루베리의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21일부터 시작된 블루베리 전문가 양성반 교육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추진하고 있다.

10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교육은 블루베리 재배 순기에 맞춰 총 10개 강좌가 개설돼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게 된다. 강사진들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홍립

박사를 비롯 주하운 박사(농촌진흥청 해외초빙과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순창군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의 체계적인 재배기술 확립으로 농가소득 향상이 한층 기대되며, 타 지역에 비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순창군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13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새로운 품종 연구와 선별장, 유통시설 지원과 함께 재배면적도 300ha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새만금 농업용지개발 공사 7월 착공

6월까지 업체 선정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을 위한 공사가 오는 7월부터 시작돼 2017년계부터는 화훼와 조식 등 대규모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어촌공사는 22일 새만금농업용지 개발을 위해 5공구 공사를 발주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업체를 선정, 7월부터 본 공사를 시작한다.

이번에 처음 착공하는 부지는 전체 7개 공구(8570ha) 가운데 김제시 광활면의 5공구(1513ha)로 사업비는

1456억원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7년 말에는 이곳에 농산무역, 동부그린, 초록마을 등 3개 농업회사가 들어서 화훼, 조식 등 농산물을 생산한다.

또 나머지 부지에는 첨단농업 시험단지, 농촌마을, 농산물 클러스터 등이 조성된다. 농어촌공사는 5공구 사업을 시작으로 나머지 6개 공구를 차례로 개발할 방침이며, 모든 공구 개발에는 총 1조52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저소득층 정부양곡 공급

전북도는 저소득 가구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정부 양곡을 반값에 공급한다. 도는 21일 “올해 68억5000여 만원을 확보, 저소득층 양곡 지원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매달 15일까지 읍·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만 쌀을 반값에 공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살 수 있는 최대량은 매달 10kg이고, 4인 이상 가족은 매달 20kg들이 2포대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쌀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주소지로 매월 21일부터 10일 이내 배달된다. 택배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전북

군산·전주, 예술의 거리 조성 나선다

개복동·동문에... 업무협약·토론회 가져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예술을 주제로 한 거리와 마을 조성에 나선다.

군산시는 문화예술의 거리(시민예술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1일 군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군산시와 군산대는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연구, 기타 문화예술의 거리 개발방안에 대해 상

의 지역의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사업비가 18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전주시 동문예술거리추진단도 이날 오전 동문거리 주민, 상인, 예술가, 건물주 등이 참여한 주민 집중검토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 상인, 예술가, 건물주 등 각 분야별로 40명의 지역주민이 참가해 동문예술거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추진단은 예술길 조성 및 동문예술거리 페스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지리산 고로쇠 본격 채취

지리산뱀사골 고로쇠 영농조합법인이 20일부터 고로쇠 채취에 나섰다. 법인은 지리산 뱀사골 일원 해발 600m 이상의 고지대의 약 2만여 그루의 대단위 군락지에서 4월 초순까지 고로쇠를 채취할 예정이다. 150여 가구의 고로쇠 채취 농가는 연간 약 540t 가량을 채취해 15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지리산뱀사골 고로쇠 영농조합법인이 20일부터 고로쇠 채취에 나섰다. 법인은 지리산 뱀사골 일원 해발 600m 이상의 고지대의 약 2만여 그루의 대단위 군락지에서 4월 초순까지 고로쇠를 채취할 예정이다. 150여 가구의 고로쇠 채취 농가는 연간 약 540t 가량을 채취해 15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기자 노트

군청사 따라 유관기관도 이전해야

신안군 청사가 본토로 이전하면서 유관 기관들도 서둘러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안군 청사는 목포시 북동에서 긴 역사를 정리하고 지난 2011년 4월 신안군 소재지인 압해읍으로 이전해 업무를 보고 있다.

이처럼 군청사가 신안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등 유관 기관들은 교통 등의 이유를 들어 이전 문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신안군은 현재 14개 읍·면에 4만5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안좌~팔금~자은~암태를 잇는 새천년대로 건설과 도초~비금과 암태를 잇는 연도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신안군 대부분의 교통망이 청사가 있는 압해읍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신안=sslee@kwangju.co.kr

이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유관 기관들이 군청사 주변으로 이전해 각종 민원을 윈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상선 서부취재본부 기자

특히 유관 기관들이 타 지역에 소재함에 따라 지방세수 등 경제성장에 제약은 물론 신안 홍보차원에서조차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관 기관들은 교통문제 등 열악한 환경을 타하며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서둘러 제 번지수를 찾아이전하고 신안군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신안=sslee@kwangju.co.kr

해남군립도서관 '한국도서관상' 수상

해남군립도서관이 도서관 분야 최고 상인 '올해의 한국도서관상'을 받았다. 한국도서관상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대학 및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전국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군립도서관은 농어촌지역인데도 활발한 독서문화행사를 전개하는 등 모범적인 운영, 다양한 자료의 전자도서관 구축,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 등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립도서관은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2009년 대통령상을 비롯한 3년 연속 우수도서관에 선정됐다. 이 용자 만족도에서도 3년 연속 전국 1위에 오르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수상을 계기로 생활 속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단신

순창,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순창군이 치아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에게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의치보철(틀니)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의치보철일부지원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직장 8만5000원, 지역 8만9000원 이내로서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자가 해당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당된다. 장애인 1급~3급은 연령제한이 없다. 또 의치보철무료사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65세위이며, 지난 12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를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틀니를 장착하게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교육발전재단, 34명에 장학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21일 예술체육 분야 우수학생 34명을 선발해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장학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

재단 측은 인문 분야의 학력증진과 더불어 예술체육 분야 사기진작과 역량 개발을 지원해 다양한 분야에 창의적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하고 있다. 올해는 34명에게 3640만 원의 장학금을 썼으며, 지금까지 572명의 예술체육 분야 장학생을 선발, 총 5억7040만원을 지급했다. 재단 이사장인 문동신 시장은 “예술체육 분야의 우수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 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 접수

고창군은 21일 “다음달 8일까지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은 지난해까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으나 제도 변경으로 올해부터는 행정기관에서 접수한다.

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14개 읍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침을 교육했다. 2012년까지는 학부모가 학교에 제출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됐으나,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읍면에 신청 후 ‘행복e음시탈’을 통해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자격이 확정된다. /고창=강철수기자 knews@

남원 정월대보름 청소년 연날리기

계사년 새해 정월대보름을 맞아 23일 오전 남원시 요천 둔지에서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제12회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가 열렸다.

남원 청소년육성회가 주관한 이번 연날리기 대회는 청소년과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실은 오색 연을 하늘 높이 날리며, 2013년 한 해 동안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한마당으로 마련

된다. 또 풍물놀이와 제기차기 등 각종 민속놀이와 함께 시범 연을 요천 바깥에 날리는 오색연의 모습은 구경하는 시민들에게도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남원시 노암동 발전협의회에서도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22일부터 3일간 관내 곳곳을 다니며 지신밟기 행사를 갖는다. /남원=백선기자 bs8787@